

광주 아파트매매가격 15주 연속 내리막

최근 두 달 새 0.53%p 하락
분양가는 천정부지 치솟아

광주·전라권 6월 입주율 78.8%
대출규제·분양정책 강화 영향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신규 재개발아파트 분양가는 치솟는 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아파트시장의 매매가격 괴리가 커지고 있다. 재개발조합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은 15주 연속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가 하락하는데 분양가는 치솟아= 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7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0.06% 하락했다. 지난 4월 첫째주 이후 15주 연속 내리막이다.

문제는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4월 초 -0.02%선이었던 낙폭은 4월 말 -0.04%, 5월 초 -0.05%, 5월 말 -0.06%, 6월들어 -0.07% 커졌다. 결국 최근 두 달 새 0.53%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남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남구는 5월 넷째주와 6월 첫째주 2주 연속 -0.11%를 기록하며,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이후 4주 연속 -0.10%를 나타냈다. 두 달 사이에 남구는 -0.74%포인트 하락했다.

광산구도 7월 둘째주 -0.06%를 기록해 전주(-0.10%)보다는 낙폭을 줄였지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아파트 매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7월 둘째주 광주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은 84.9로 전주(85.8)보다 내려갔다. 수

급 동향은 '0'에 가까울수록 공급 우위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 우위이다. '84.9'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월등히 높다는 의미이며, 공급 우위가 강해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전남지역은 7월 둘째주 -0.02%를 기록, 3주 연속 하락했다.

무안군이 전주에 이어 -0.11%를 보이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동부권인 여수와 광양은 각각 0.02%, 0.01% 상승했다.

◇입주경기 흐름= 대출 규제와 계절적 요인, 최근 정부의 분양정책 강화 등이 겹치면서 휴가철 입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광주

82.6, 전남 81.2로 3개월 연속 80선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 주택사업자들은 입주 경기도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달보다 -4.3포인트 낮춰 본 것이다. 입주 결과도 지난 5월 91.3에서 전달 83.3으로 -8.0포인트 감소했다.

주택사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나빠졌다. 전달 입주경기 전망을 86.9로 봤는데 실적은 83.3에 그쳐 입주경기에 대

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입주여건이 나빠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전남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 HOSI 전망이 3개월(73.3→80.0→81.2) 연속 개선된 데다, 주택사업자의 체감경기 겹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광주·전라권 6월 입주율은 78.8%로 나타났다. 전달 83.6%보다 4.8%포인트 줄어들었다. 주요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41.8%), 세입자 미확보(23.9%), 잔금대출 미확보(20.9%) 등을 꼽았다.

7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광주는 민간분양 2곳을 포함한 5개 단지 2261가구, 전남은 민간분양 3개단지 2044가구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오늘 분양

사통팔달·천혜자연 갖춰

금호산업은 순천시 서면 선명리 강정수변공원 앞에 있는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투시도)를 12일부터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최고 16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5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 186가구, 78㎡ 101가구, 84㎡ 172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60만원대로, 인근 분양 단지보다 저렴하다. 계약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60% 무이자 용자 혜택을 제공한다.

단지는 남향 및 판상형 위주로 배치,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특히 4베이(bay), 신명면(일부 유형)을 적용해 공간활용과 실용성을 높였다. 전용 59㎡ A·B형은 채광이 우수한 거실 양면 개방형으로 설계됐다. 입주자 편의를 위해 모든 가구에 드레스룸을 제공하고, 일부 세대는 수납공간이 우수한 팬트리

를 공급한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맘스스테이,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는 입지조건이 탁월하다. 강정수변공원 앞에 건립해 자연환경과 조망권이 우수하다. 순천만으로 흐르는 동천을 끼고 조성된

강정수변공원에는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갖춰져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삼산공원과 봉화산도 가까이 산책하기 좋다.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접근성이 좋다. 남해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한 순천C가 가까워 광주, 광양, 부산 등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순천시내 중심도로인 삼산로와 백강로가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생활편의시설도 완비됐다. 단지 1.5km 이내에 동산초, 용당초, 향림중, 순천여중, 팔마고, 호산고, 순천제일고 등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다. 또 차량으로 5분-10분 거리에 홈플러스, 이마트, NC백화점, 중앙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CGV, 메가박스, 순천시청, 순천한국병원 등도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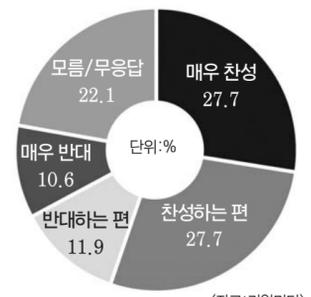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삼산공원·서면 일대에는 순천 원도심 개발로 인해 약 9000여 가구의 주거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약 52만8925㎡(16만여평) 규모 삼산민간공원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순천시 조례동 홈플러스 순천점 옆에 마련된 견본주택은 12일 문을 연다. 입주는 2021년 하반기 예정이다. 분양문의, 061-744-4590.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국민 55%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찬성"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에 대해



대부분 계층서 찬성 높게 나와
한국당 지지·보수층 반대 높아

국민 절반 이상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5.4%(매우 찬성 27.7%, 찬성하는 편 27.7%), '반대한다'는 22.5%(매우 반대 10.6%, 반대하는 편 11.9%)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과 연령, 진보층과 중도층, 정의당·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

당층 등 거의 대부분 계층에서 찬성이 다수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59.7%, 20.8%), 서울(59.4%, 23.3%), 광주·전라(57.1%, 25.2%), 대전·세종·충청(53.3%, 19.7%), 부산·울산·경남(45%, 28.3%), 대구·경북(43.9%, 22.3%) 등의 순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63.5%, 21.8%)와 50대(61.3%, 24.1%)가 다른 연령대보다는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바랐다. 30대(58.0%, 22.4%), 20대(48.5%, 12.5%), 60대 이상(47.8%, 28.3%)였다.

정당별로는 정의당(찬성 81%, 반대 1.9%)과 민주당 지지층(71.2%, 10.9%)

은 10명 중 7-8명 꼴로 찬성했다. 바른미래당 지지층(49.1%, 22.2%)과 무당층(48.7%, 24.1%)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절반 이상 많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0.2%, 반대 43.3%)은 반대가 많았다. 보수층(37.1%, 41.6%)도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619명 중 501명이 응답해 4.3%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포인트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LH, 빛그린산단 근린생활용지 4필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광주형 일자리로 부각되고 있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4필지(4000㎡)를 오는 17-18일 이틀간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는 광주시 최대 역점사업이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도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생산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다.

완성차공장은 부지 60만㎡에 5754억 원을 투입, 2021년 11월부터 1000cc 미

만 경차 생산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공급 용지는 광주 구역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와 합평 1구역 주차장용지 1필지로, 4필지 모두 완성차공장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공급 받으려면 오는 17-18일 이틀간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입찰신청해야 한다. 문의, LH 광주전남본부 판매부 062-360-3177, 3174.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경제역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신산업부담금 4개 단계상환(광주·전북·전남·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시남에 예산총액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능함에 긍정적 노력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